

# “악기로 소통”...문화 취약계층 성장 기회 ‘감동’

## 2026 희망을 잇다

〈4〉‘꿈의 오케스트라광주’

2013년 결성...올해 초2-중3 60명 활동  
매주 목요일 연습...단원들과 소통·교감  
악단 졸업 후 관련 학과 진학 사례 ‘눈길’  
내년도 ‘뉴욕 K공연’ 무대 위해 ‘구슬땀’



광주 지역 문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된 ‘꿈의 오케스트라광주’가 내년 ‘뉴욕 K공연’ 무대를 앞두고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 (광주 남구생활문화센터 제공)

“올해 열심히 연습해서 내년에 가게 될 뉴욕 공연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의 단원으로 4년째 활동 중인 황모(13)양은 이 같은 다짐으로 매주 목요일마다 동료들과 함께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황양이 소속된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광주 지역 문화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단원들은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예술을 통해 세상과 소통·교감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음악을 진로로 정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는 지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최·주관하는 사업에 남구가 선정돼 결성됐고, 2018년까지 국가 지원으로 운영됐다.  
2019년부터 남구가 운영하는 생활문화센터

산하로 편입된 이후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호른 등의 악기를 지원받고 있다.  
매년 새롭게 모집된 단원들은 연습 참여도 가능하며 문화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 가정, 새터민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정의 경우 우선 선발의 기회가 주어진다.  
올해 초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된 초고 2학년 부터 중 3학년까지 총 60명과 음악 감독 1명, 강사 9명이 모여 연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흘린 땀이 크고 작은 결실을 맺기도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제1회 광주 시민의 날’ 행사에서 무대에 올라 호응을 얻었다. 오는 8월

에는 대구시 청소년수련관과의 합동 캠프를 통해 타 지역 악단과 교류의 장도 가질 계획이다.  
이 같은 활동은 2년 이상 선발된 단원들이 선배로서 후배들을 이끌어주면서 빠른 성장을 보이는 결과라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단원들은 남구에서 추진 중인 내년 ‘뉴욕 K공연’ 무대에 서기 위해 더욱 열정을 보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황양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악기를 연습할 때마다 설레이며, 내년 뉴욕 공연은 평생 한 번 뿐인 무대가 될 것 같아 꿈만 같다”면서 “후배 단원들을 잘 이끌고, 한 명의 음악인으로 성장해 보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꿈의 오케스트라 광주의 활동을 돕는 김성운 남구 생활문화센터장은 “단원들은 악기를 배우는 과정에서 협동·배려·리더십도 익히고 일부는 활동을 계기로 음악의 꿈을 찾기도 한다”며 “악기를 살 돈이 없어 음악의 꿈을 포기하려 했던 한 아이가 악단 졸업 후 음악학과를 진학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큰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 활동에 있어 소외된 아이들을 돕고 이들의 꿈을 펼쳐주기 위해 모금한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라며 “뉴욕 무대를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면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서형우기자

# 고흥 굴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착취 의혹 재점화

이주단체, 고용주·브로커 등 3명 고발  
“계절근로제 구조적 문제...개선 필요”



최근 고흥 소재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필리핀 출신 계절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피해가 더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은 8일 오전 11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3명을 대리해 고흥 소재 굴 양식장 사업주와 브로커 2명을 고소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들 단체는 사업주에 대해 강요와 협박,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요청했다.  
브로커들에 대해서는 직업안정법 위반과 노동력착취유인, 강요 등의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E-8 ‘외국인 계절근로 프로그램

램’을 통해 입국한 뒤 고흥지역 한 굴 양식장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을 강요받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간 꿀 30kg 할당량이 주어졌고 임금도 작업량에 따라 지급됐다”며 “오전 4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장시간 노동을 했지만 초과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받지 못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허가받지 않은 다른 사업장으로 보내져 벽돌 나르기와 농작물 수확, 선박 작업 등에 투입됐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도 보관당했으

며 외출까지 제한받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2월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뒤 ‘자진 퇴사 확인서’ 서명을 강요받았으며 귀국 과정에서 항공료와 차량 비용까지 급여에서 공제됐다”고 언급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고흥지역 굴 양식장 2곳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26명에 대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당시 브로커 2명과 사업장 1개소가 형사입건됐으며, 노동단체들은 계절노동자 착취가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손상용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고흥지역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계절근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찬용기자

## “성범죄 교사 해임 처분 정당...감경 불가”

성폭력 범죄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가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법원은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대중교통인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는데, 이로 인해 교직에서 해임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약 20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표창까지 받았으며 징계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비위행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교원의 역할과 책임에 비추어 사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인재영기자

**Next 120\***  
**광주기독병원**  
지역민의 건강과 함께합니다.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실천

지역을 위한 책임있는 의료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단·치료까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건강안전망 구축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위한 노력
-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아간·휴일에도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

120년의 역사와 신뢰로, 지역민의 건강한 삶과 함께 하겠습니다.

**광주기독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062.650.5000

이사진 권용식  
병원장 이승욱

광주매일신문 창사 35주년 SINCE 1991  
건강한 삶의 동반자  
**조선대학교병원**  
CHOSUN UNIVERSITY HOSPITAL

**동행**  
다들 아픈데 귀로 기쁨을 함께 나눠 나가는 것

[의료광고심의필 제201022-중-113068호]

고객센터 1811-7474  
· 권역응급의료센터 062-220-3119  
· 종합건강증진센터 062-220-3030  
· 공단검진 062-220-3615  
· 홈페이지 https://hossp.chosun.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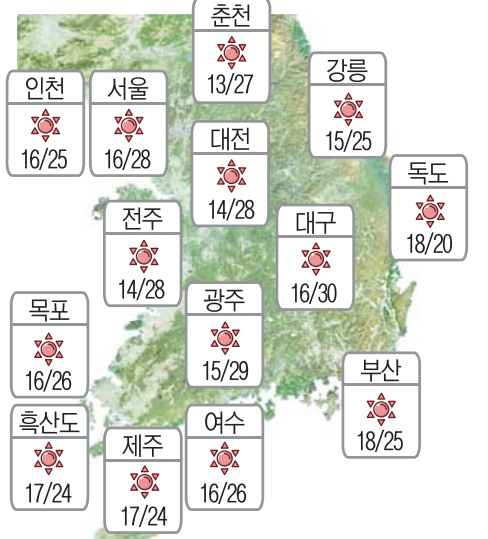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해질 19:46 🌙달돋이 00:55 달짐 13:12

###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15/29	장성	맑음	13/28
목포	맑음	16/26	보성	맑음	13/26
여수	맑음	16/26	함평	맑음	14/27
나주	맑음	13/28	순천	맑음	15/27
완도	맑음	15/27	영광	맑음	14/27
구례	맑음	13/28	진도	맑음	14/26
강진	맑음	15/27	흑산도	맑음	17/24
해남	맑음	14/27	고흥	맑음	14/27
광양	맑음	15/28	담양	맑음	14/28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0.5
남부	만바다(북) 0.5-1.0	0.5-1.0
	만바다(남) 0.5-1.0	0.5-1.0
남해	앞바다 0.5-0.5	0.5-0.5
서부	만바다(동) 0.5-1.0	0.5-1.0
	만바다(서) 0.5-1.0	0.5-1.0

###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8:00	00:50	여수	02:57	09:35	03:49	10:47
	20:37	13:45		15:51	21:39	16:35	22:48

###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80 🚗 세차 80  
감기 조심해요 세차하기 좋은날  
🧤 빨래 70 🏃 운동 50  
실외건조 좋아요 준비운동은 충분히

### ●주간 날씨

10일(수)	11일(목)	12일(금)
☀(15/29)	☀(16/26)	☀(15/28)
맑음	맑음	맑음
13일(토)	14일(일)	15일(월)
☀(16/31)	☁(17/29)	☁(16/29)
맑음	구름조금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